창사 60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7342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음력 11월 5일)

호남권 대졸자 40% 타 지역서 취업한다

수도권 26% 최다…충청·강원 順
일자리 부족·급여 차이가 주 원인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경상권과 전라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일자리 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남권 대졸 취업자의 38.9%는 타 지역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25.5%는 수도권, 9.3%는 충청·강원·제주 등으로 취업했다. 호남 소재 대졸 취업자들 가운데 지역에 남아있는 비율은 61.1%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대졸자들의 취업을 위한 이동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상권 대졸자에 비해 호남권 대졸자의 수도권 이동 비율이 더 높았다. 경상권 대졸 취업자의 77.0%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대졸 취업자의 89.7%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인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권 대졸자의 타지역 취업이 많은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급여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다. 호남권 대졸자가 수도권에 취업한 경우 월 평균 급여는 214만원으로, 호남에 남은 대졸 취업자 급여(194만원)보다 20만원 많았다.

하지만 일자리 적합도의 경우 타지역 대졸 취업자가 9.43점으로, 호남에 남은 대졸 취업자 9.61점보다 0.18점 낮았다. 일자리 적합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취업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컸다. 2016년 현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수도권이 44.7%로 비수도권(39.5%)보다 5.2%p 높았다.

충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37.4%로 떨어지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7.3%p로 확대됐다. 대기업도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2015년 현재 종사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 557개 가운데 61.4%(342개)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었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호남권 대졸자 중 수도권 취업자는 지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일자리를 다양하게 해서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일자리가 양과 질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해왔다"며 "호남의 경우 영남과 비교해 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해 대졸 취업자들이 대거 수도권행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임후성 기자

서울대 인문 401점, 연·고대 394점, 전남대 의예 399점

시교육청·진학부장협의회 수능 실채점 분석결과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 지원단과 진학부장 협의회가 10일 2019학년도 수능 실채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영역 132점, 수학 영역은 가형 126점, 나형 130점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84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8점이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작년(10.03%)보다 현저히 줄어든 5.3%가 나왔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과목에 따라 1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63-67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64-67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난이도와 관련이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영역에서 전년도 표준점수 최고점(134점)보다 16점 오른 150점으로 나타나 '불수능'을 실감케 했다. 수학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으로 작년보다 3점, 수학 나형 최고점은 139점으로 4점 상승했다.

서울대는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을 기준으로 국어·수학·탐구 600점 표준점수 기준 인문계열은 401점 이상, 자연계열은 398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국·수·탐 600점 표준점수 기준 인문계열 394점 내외, 자연계열 386점 내외다. 자연계열 극상위권인 의예과는 서울대 411점, 연세대 408점, 고려대 405점, 성균관대 408점, 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404점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전남대는 영어교육과 378점, 국어교육과 377점, 경영학부 373점 등으로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359점 안팎. 자연계열의 경우 의예과 399점, 치의학과·학·석사 통합과정 395점, 수의예과 387점, 전기공학과 373점, 수학교육과 367점, 간호학과 364점이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56점, 국어교육과 352점, 정치외교학과 320점, 스페인어과 318점이며 인문계열 하위권 모집단위는 312점대 내외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397점, 치의예과 394점, 간호학과 361점, 수학교육과 351점, 기계공학과 332점, 하위권 학과는 311점 내외가 제시됐다.

광주교대는 백분위 성적 300점(국·수·탐) 기준으로 273점에 영어 1등급 정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수학 가형 응시자 기준 387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기자

검찰 출석한 윤 전 시장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윤장현 전 시장 검찰 출석

"광주시민께 송구 공천 바란 것 아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오는 13일 6·13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서다. ▶관련기사 6면

윤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검 출입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첫 마디를 뗐다.

그는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오승지 기자

'광주 일자리 토론 한마당' 내일 개최

오후 1시 DJ센터…청년 등 4개 분야 200명 원탁토론

지역 일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2018 광주 일자리 토론한마당'이 오는 12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하는 토론한마당은 시민,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신하고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200인 시민원탁토론 ▲광주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200인 원탁토론에는 광주여성재단,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문화재단,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4개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활발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광주매일TV는 '광주 일자리 토론한마당'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생중계는 인터넷(www.kjdaily.com)과 모바일(m.kjdaily.com)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김다이 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김근태민주주의학교] 제2강 한반도 평화의 길 - 이인영 국회의원
[파워인터뷰] 장호직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이사장
'happy winter with 현상' 콘서트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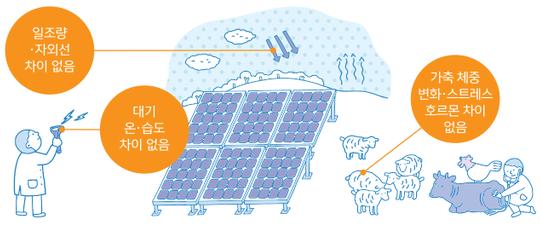
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태양광·풍력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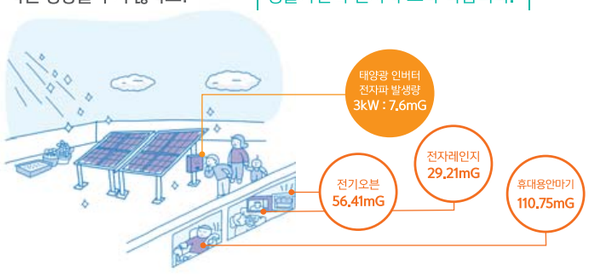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태양광 바로알기

Q1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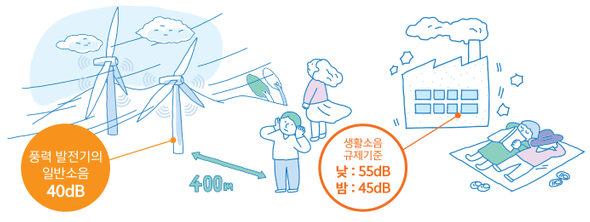
Q2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는 생활가전의 전자파 보다 약합니다.



Q3 태양광 발전소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빛 반사율은 5~6%로 유리의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풍력 바로알기

Q4 풍력 발전소 소음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며 발전기 일반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합니다.



Q5 해상에 설치하면 해상 생태계에 문제가 없나요?
생태계 피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Q6 풍력 발전기가 주변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나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운영 종료 후 회복됩니다.

CMYK